

“선행 베풀면 되돌아오죠 ... 지역사회 나눔문화 더 많이 참여했으면”

광주 33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한 아로마라이프 이학재 회장

“사업은 돈만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나마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더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에 나서게 됐습니다.”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아로마라이프의 이학재(58) 회장이 1억원 이상 고액 개인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광주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장판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립비로 써달라며 2500만원의 성금을 기탁, 앞으로 5년 이내 1억원의 기부를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이로써 광주지역 33호, 전국 947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회장은 이미 지역을 넘어 국내외에서 수많은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부인 이광은(58) ㈜메르시 대표와 함께 독거노인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청소년 학비, 기숙사비를 후원해 오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연탄과 쌀을 배달하고, 직원들과 김장 5000포기를 담가 이웃들에게 건넨 게 벌써 8년째다. 지난 2012년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나주 농민들을 도왔고, 가수 인순이씨가 세운 해밀락

8년째 연탄·쌀·김장 기탁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앞장

캄보디아 우물 파주기 후원도

교도 후원했다.

이 회장 부부가 매년 자신들의 수입에서 30% 상당을 이웃을 위해 거침없이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차례 사업에 실패한 뒤 8년 전 재기를 꿈꾸며 ㈜아로마라이프 창업할 때 일이다. 당시 공장 자재대금 3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가 돈이 부족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당장 자재비가 없어 공장 문을 닫아야했던 처지에도 이들 부부는 통장의 잔고이자, 전 재산 100만 원을 내놨다.

이들의 쉽지 않은 결정이 도화선이 돼 주변에서도 십시일반 도움을 손길을 건네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선행(?) 덕분인지 공장 자재비 3000만원도 덩달아 해결됐다고 한다.



이학재(왼쪽) ㈜아로마라이프 회장이 지난 4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재규 부회장으로부터 인증패를 받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베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군가를 도우면 되돌아 온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회장의 이런 마음 씀씀이는 회사에도 스며들었다. 직원들이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

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회사가 돼 가고 있다고 한다.

10년을 화장품 회사의 직장인으로, 이후 개인사업가로 활동하다가 쓰러진 실패를 맛봐야 했던 그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최고로 친다. 그래서 회사 임금구조를 영입직 직원들이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바꿨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아로마라이프는 복지정책에서도 남다른다. 대리점 직원, 임·직원 자녀들에게도 꾸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경영철학은 ㈜아로마라이프를 불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능 성 속옷 업계 1위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이 회장의 ‘나눔정신’은 회사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됐다. 회사 직원들도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캄보디아를 찾아가 우물을 파주고 화장실을 만들어 줬다. 당시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은 후원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선교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의약품과 생필품 등도 전해 주고 있다.

‘아로마라이프’라는 회사 이름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이학재 회장은 “지역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회사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 환원에 보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이내 1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개인 기부자다.

“KTX-남도 자원 연계 수도권 관광객 끌어올 것”

김현섭 코레일 광주본부장



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지역 자치단체에서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시 코레일의 문을 적극 두드려달라. 필요하다면 남도의 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송정역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관련, 김 본부장은 “광주송정역은 이용객에 비해 역사가 좁고, 주차장 면적도 좁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현재 390면으로 된 주차장을 늘여 2200면 이상 늘리는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철도와 남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수도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섭 코레일 광주본부 본부장은 6일 “안전과 고객 만족, 지역경제 기여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본부장은 먼저 “철도에서 안전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이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코레일 광주본부 임직원 모두는 ‘안전에서 99.99%만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은 기본적으로 공기기업으로서 흑자 경영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전체의 관광자원이 많은 광주·전남의 경우 호남고속철도(KTX)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광주도시철도공사-밝은광주안과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와 밝은광주안과(원장 조철웅·김재봉)는 최근 상무역 대합실에서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도시철도공사 정선수 사장을 비롯해 밝은광주안과 조철웅 원장, 광주 나자렛집 조근영 수녀, 광주서구보건소 김명경 소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7월 밝은광주안과의 후원을 받아 상무역에 조성된 사랑의 건강계단은 계단걸기 1회당 10원을 적립해 총 4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으며 광주나자렛집과 광주서구보건소로 전달돼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데 쓰이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린 ‘사랑의 건강계단 UCC 공



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함께 UCC 입상작 시연 행사도 펼쳐졌다.

정선수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사랑의 건강계단을 오르면 건강지수뿐 아니라 사랑의 온도도 올라간다”며, “사랑의 건강계단이 다른 역사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함평 재생원서 감사패 받아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사진)이 한센인 마을인 전남 함평 재생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함평 재생원은 지난 5일 사단법인 민생평화광장, 재생마을 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감사 잔치를 열었다. 이재은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소외된 한센인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진데 감사하는 의미로 최 실장에게 감사패를 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사

- ◆KBS
- ◇지역
- ▲광주방송총국장 강정기 ▲전주방송총국장 함형진 ▲목포방송국장 윤태호



전라도 장터 사람들

<6> 무안 망운장터 철물장수 김경순씨

인구 감소와 교통의 발달, 그리고 날이 늘여가는 대형마트들로 인해 사라져가는 시골장터 5일장. 무안군 망운장터 역시 축소돼 가고 있다.

망운장터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동네 약국 할아버지(85)는 “우시장도 크게 쇠고, 장날에 모이는 사람만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회상했다. 공짜로 나눠주던 광고용 부채가 2000개는 족히 넘었다고 한다.

대이어 철물·생필품 장사 ... 8년째 봉사활동도

하지만, 지금은 장사꾼 10명 남짓이 길 옆에 천막을 치고 난전을 지키고 있다. 2대째 장터를 지키고 있는 효부 김경순(67)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철물점을 물려받았다.

시아버지가 45년, 며느리가 40년이라는 세월을 망운장터에서 철물과 생필품을 팔고 있다.

터줏대감이나 다를 없다. 그는 홀몸으로 3남1녀를 모두 키웠다.

장날(1일·6일)마다 운동도 할 겸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를 출퇴근하는 김씨는 “3대까지 물려줄 생각은 없고 5년만 더 하고 장터를 졸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8년 전부터 답양의 한 노인요양병원에 100벌의 옷을 구입해 매년 보내고 있다. 봉사하는 보람된 마음으로 장터의 삶도 재미가 쏠쏠하다는 김씨.

그는 “장사가 더 잘 되면 더 많은 기부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다. 시골장터가 사라지고 규모도 축소돼가고 있지만 장터사람들의 마음씨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있다. 이런 장사에 대한민국 고유의 맛이 아니었던가.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진리를 김씨가 깨우쳐 주는 것 같아 마음속까지 훈훈진다.

이수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배운순(전 논평 진도군지부)·조진숙씨 아들 우리(진도 선진농협) 김승이·최진숙씨 딸 란(진도 선진농협)양=12일(토) 낮 12시 진도군 서울웨딩홀 2층 다이아몬드홀.

향우회

▲재광영암향우회(회장 조성희) 제65회 정기총회 및 영암인 한가족의 밤=10일(목)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마북동 아이리스웨딩홀 062-385-7800. 담당자 성만기 010-8620-4613.

▲재광정성향우회(회장 고정주)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10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마리아 주 웨딩스퀘어 4층(상록회관) 문의 사무총장 박상만 010-6688-3022.

▲재광보성군향우회(회장 정인재) 정기총회=14일(월)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KT빌딩 4층(동구청 옆) 문의 062-222-0278.

종친회

▲새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회장 이달우) 이화회(회장 이승안) 월례회의=8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경주배씨 광주중친회(회장 배경석) 월례회의=10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상상한 민어, 전이회관 문의 010-4174-3159.

동창회

▲장성 동화초등학교 총동창회(회장 백근기)송년 큰모임=12일(토) 오후 3시 장성 동화초등학교 체육관, 문의 사무총장 박계환 010-3618-4635.

▲발남초등학교 제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정기총회=15일(화) 오후 5시30분 광주시 북구 누문동 맏가 문의 062-222-0728.

동문회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

고·동성중·동성여중) 광주 북구동문회(회장 김만수) 송년의 밤=7일(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그랑시어웨딩컨벤션 010-3627-0635.

▲학대리중·고 광주·전남동문회(회장 윤성운) 송년회=9일(수)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마북동 내교향보리한우 062-385-929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인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인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

트 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로 용화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 062-232-1313.

모집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자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부음

▲지형원(문화통 대표·전 광주일보 편

집국장) 씨 빙모상=발인 7일(월) 오전 7시30분 만평장례식장 302호. 062-611-0000

▲정남례씨 별세 서현주·영식·영환·상원·상복·성관씨 모친상=발인 8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201호 故김용란 님(여/96세) 子/子婦: 나종채/임학자, 종관/김인영, 종운/정혜승 女/婿: 나상순/황의중, 성자/이진도, 성숙/김동진		301호 故오순애 님(여/91세) 子/子婦: 나경호/김명순, 인모/이인영, 춘모/고은송 女/婿: 반순옥, 순덕/이종현, 흥순/정일선, 경자/윤영규 孫: 반창봉, 창환, 승환	
*발 인: 12월 7일 *장 지: 주남마을 선영	*연락처: 227-4381	*발 인: 12월 8일 *장 지: 화순 남면 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변순임 님(여/73세) 子/子婦: 이대영/오혜진, 진영/이은영 女/婿: 이영숙/최길성 夫孀: 이이철		402호 故김남용 님(남/81세) 子/子婦: 김석찬/이영란, 석진/김진희, 석환/이연순	
*발 인: 12월 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발 인: 12월 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故강영순 님(여/77세) 子/子婦: 최광준/영진희, 종준/이기화 女/婿: 최영미/조관영, 영지		102호 故정진기 님(남/75세) 子/子婦: 정문규/이양순, 문석/권현희 女/婿: 정문희/김종길 未亡人: 차영래	
*발 인: 12월 7일 *장 지: 화순 북면 선영	*연락처: 227-4385	*발 인: 12월 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